

韓國地形區

朴 魯 植

<目 次>

- | | |
|--------------------|---------|
| I. 韓國地形區의 研究系譜 | B. 古韓地塊 |
| II. 韓國地形區分의 目的 | 2. 楸 南 |
| III. 韓國地形區 設定 및 指標 | A. 韓地塊 |
| IV. 韓國地形區分 | B. 嶺南盆地 |
| 1. 楸 北 | C. 湖南平野 |
| A. 蓋馬地塊 | |

I. 韓國地形區의 研究系譜

過去 韓國地形區設定의 研究는 일찍부터 地形研究와 더불어 發展하여 왔으나 本格的인 研究로 轉向된 것은 解放後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地形과 地形區의 研究를 史的으로 考察하여 이것을 區分한다면 三期로 區分할 수가 있다.

第一期는 地體構造나 地質構造 즉 組織을 主로한 地形의 研究時期(1900年代)

第二期는 高位平坦面, 低位平坦面과 같이 侵蝕過程을 發達史的으로 卽 時期를 主로한 地形의 研究時期(1930~1940年代)

第三期 前半은 第二期의 踏襲으로 平坦面研究와 區分, 後半은 地形研究와 地形區를 應用地形學的인 面에서의 研究時期(1960~1970年代)

第一期

李朝時代에 李重煥의 「八域地」³⁾는 1700年代 所産으로 事大思想主義下에서 學問의 發達이 時代의 潮流에 따라서 인지 韓國山脈構造를 Asia地體構造와 關聯시켜서 言及하였다. 卽, 韓國의

山脈은 崑崙山脈을 主宗으로 하여 陰山山脈과 長白山脈을 連結시켰다.

年代로 보아 約 200年 以後인 1900年代에 이르러 小藤文次郎의 「山嶽論」⁴⁾은 韓國地形을 地體構造에 依해 楸哥嶺을 中心으로 北朝鮮, 南朝鮮으로 區分하고 다시 地殼運動의 方向에 依하여 遼東系, 支那系, 朝鮮系로 區分하였다. 小藤博士의 地形區를 整理하면

- 北朝鮮
- 蓋馬地塊
- 古朝鮮地塊
- 南朝鮮 韓地塊
- 太白山系
- 小白山系
- 韓山系

이 區分이 韓國에 있어 地體構造上으로 體系적인 地形區分을 한 것으로서 鼻祖이다.

小藤博士의 「山嶽論」의 理論을 敷衍시키면 地體構造論을 體系化하고 地質構造에 依한 不等侵蝕이 地形에 影響을 주는 面까지 言及한 것은 1930年代에 있어 中村新太郎博士의 「朝鮮의 自然地理」中の 地貌論과 特殊地形諸篇⁵⁾이다.

[年代로는 1930年代나 組織을 中心으로 理論

註: 文獻 1. 2는 序論에서 引用(本論文은 序論을 省略)

3) 李重煥: 八域誌(1727-1730)

4) 小藤文次郎: 山嶽論, 日本, 1901-1902

5) 中村新太郎: 朝鮮의 自然地理, 地貌論, 特殊地形誌, 改造社, 日本 1930.

을 展開하여 第一期로 挿入했다]

[Richthöfen의 東 Asia 階段의 地塊의 斷面圖에 蓋馬地塊, 滿州傾動地塊와 日本의 傾動地塊表示]⁶⁾

第二期

1930年代에 들어서면서 韓國地形研究는 一種의 方向轉換期였다. 그것은 前期의 地體構造를 主로 하는 地形을 侵蝕面을 中心으로 發達史의 으로 展開시키는데 따라서 地形研究는 侵蝕平坦面의 區分에 依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關하여 1931년에 小林貞一博士⁷⁾는 韓國地形을 地體構造의 立場에서 地盤運動과 侵蝕을 關聯시켜 發達史의 으로 考察하였다.

即 韓國地形을 非對稱의 撓曲運動에 依하여 侵蝕回春으로 形成된 複輪廻山地라 하여 侵蝕平坦面을 高位平坦面과 低位平坦面으로 區分하였다.

前者는 六百山面 後者는 驪州面, 嶺東面이라 하였고 高位, 低位平坦面의 境界는 忠州附近이며 그 以西는 中村新太郎博士가 지적한 樂浪準平原에 對比되는 準平原이 있어 驪州準平原이라고 名命하였다.

1941년에 多田文男博士⁸⁾는 韓國地形은 太白山脈을 主軸으로 하여 急斜面을 東海側에 緩斜面을 黃海側으로 向한 比較的 緩慢한 隆起運動을 한 一大傾動地塊라고 하여 新舊 二個의 侵蝕面으로 區分하였다.

舊侵蝕面은 蓋馬臺地, 六白山面이며 第三紀中葉以後의 靜止時代에 形成되었고 新侵蝕面은 樂浪, 驪州面의 丘陵이며 舊侵蝕面이 隆起된 後에 侵蝕回春에 依해 形成된 周邊準平(Marginal penepplain)原이라고 하였다.

1947년에 吉川虎雄⁹⁾는 多田博士의 論을 踏襲하면서 間歇的인 隆起運動과 侵蝕面을 關聯시켜

서 新舊侵蝕面을 區分하였고 高位平坦面의 六百山面과 低位平坦面의 驪州面 中間에 있는 漢江流上에 4個의 遷移點을 認定하여 忠州面, 堤川面, 下珍富面, 大關嶺面의 4面으로 分類하였다.

第三期

前半期는 第二期의 侵蝕平坦面研究와 區分에 있어 1965년에 赤木祥彦는 「韓國의 Pediment地形研究」¹⁰⁾에 있어 低位平坦面을 大關嶺面, 下珍富面으로 區分하여 이것을 中位平坦面이라 하였고 忠州, 堤川低位平坦面과 區分하였다.

1963년에 著者는 「智異山地域開發報告, 地形篇」¹¹⁾에서 侵蝕平坦面區分에 있어 萬福臺를 高位平坦面, 番洞, 西洞을 中位平坦面, 舟村을 低位平坦面으로 區分하였고 土地利用에 立脚하여 地形分類를 하여 高位平坦面, 中位平坦面, 低位平坦面, 扇狀地, 高原, 盆地, 氾濫原 등으로 區分하였다.

同年 「首都廣域圈都市計劃調查報告書 地形篇」¹²⁾에서 土地利用을 目的으로 地形面分類를 試圖하였다.

即 山地 丘陵, 平野를 大區分하고 山地는 다시 平坦面에 依하여 高位, 中位, 低位, 殘丘로 平野는 沖積平野, 氾濫原, 盆地, 自然堤坊, 河床島, 河跡湖, 低濕地, 砂地로 區分하였다.

또 1966년에 「大關嶺山地開發의 方向報告, 地形篇」¹³⁾에서 侵蝕平坦面을 高位, 中位, 低位의 平坦面으로 三區分하였다, 黃柄山은 高位, 楡川大和는 中位, 嶺東面은 低位平坦面이다.

아울러 土地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地形區分으로서 地質構造線을 境界으로 北部와 南部로 區分하고 다시 兩地域을 高位平坦面, 中位平坦面, 低位平坦面, 平頂峰, 殘丘(A. 原地, B. 孤立殘丘) 遷移點으로 區分하였다.

1965年 金相昊教授는 韓國 中部地方의¹⁴⁾ 地形

6) Richthöfen : 東 Asia 階段地塊斷面

飯本信之, 地理講座, Asia의 概說과 滿州蒙古, 地質, 日本, 1933

7) 小林貞: 朝鮮半島 地形發達史와 地史의 關係에 대한 考察, 地評 (1,2)7. 日本 1931.

8) 多田文男: 朝鮮의 地形, 地評, 17卷, 日本, 1941.

9) 吉川虎雄: 朝鮮半島中部의 地形發達史, 地質 53, 日本 1947.

10) 赤木祥彦: 朝鮮의 Pediment, 地評 38卷 11號, 日本 1965.

11) 朴魯植: 智異山地開發報告書, 地形篇, 國民運動再建本部 1963.

12) 朴魯植: 首都廣域圈調查, 地形篇, 建設部 1963.

13) 朴魯植: 大關嶺地域開發의 方向報告, 地形篇, 1966.

14) 金相昊: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出版部, 1965.

達發의 研究에서 高位平坦面과 低位平坦面을 區分하여 後者의 境遇, 吉川虎雄가 大關嶺面, 下珍富面, 堤川面, 忠州面으로 四區分한 것을 金浦面을 하나 더 添加하여 區分하였다.

1966년에 金相昊教授는 Pediment 地形面의 分析을 構成物質을 通하여 形成過程을 究明하여¹⁵⁾ 侵蝕面에 對한 微地形 研究에 新局面을 開拓하였다.

1967年 著者는 漢江下流地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¹⁶⁾에서 漢江下流地形의 微地形區分을 土地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應用地形學의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試圖하였다.

山地(400m 以上)	河跡湖
殘丘	背後低濕地
低位平坦面 { 上段(200~300m)	自然堤坊
{ 不段(±100m)	人工堤坊
Pediment	斷崖
山麓面	砂地
麓層面	砂礫地
扇狀地	草地
谷底平野	荒地
盆地	蘆田
氾濫原 { 新層	泥地
{ 舊層	針葉樹
三角洲	闊葉樹
洪澗地	混合林
舊河道	矮松

1969년에 韓國山地綜合開發에 關한 研究中 太白山地域의 農業的 土地利用을 中心으로¹⁷⁾ 다음과 같이 地形區分을 試圖하였다.

- 高位平坦面 (900m 以上)
- 中位平坦面 (500~400m)
- 低位平坦面 (400m 以下)
- 平頂峰
- 高嶺地, 高位平坦面境界
- 遷移點
- 原地殘丘
- 孤立殘丘

II. 韓國地形區分の 目的

地形區分の 目的은 序論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大體로 둘로 區分한다.

- 1) 地形을 科學的으로 研究한다.
- 2) 應用地形의 하나로 土地의 合理的인 利用 開發및 保全等의 地域計劃을 爲한 地形分類와 또는 地理區의 基本資料로 한다.

地形區分の 目的은 一般的인 目的과 우리나라 地形區分の 特殊的인 目的이 있다. 이것은 同時에 考慮되어야 한다.

1) 地形의 科學的 研究

地形의 一般的인 主要要素는 地形의 形態① 構造物質② 營力및 成因③ 形成時期④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地形은 우리나라 固有의 地形特色이 地域的으로 分布되어 있어서 이러한 地形의 特色은 地形을 構成하고 있는 四大要素가 어떻게 有機的으로 結合되었으며 또 그中에 支配的인 要素가 무엇인가를 究明해야 한다. 이러한 研究는 地形을 科學的, 系統的으로 分類한 結果理論的으로 體系化되어야 한다.

前記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地盤이 安定되고 長久한 時期에 걸쳐서 侵蝕이 進行되어 主로 削剝으로 된 晚壯年期中에서 老年期에 이르는 地形의 特色은 이러한 地形의 要素中에 어느 點에 重點을 두고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問題는 取扱하는 境遇에 따라 다르다.

例를 들면, 우리나라 中部地域의 地形 卽 高位, 中位, 低位平坦面을 다루는데는 地形의 形成過程이나 形成時代의 把握을 地形發達史의 方面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春川盆地의 Pediment 地形을 다루는데는 地表 構成物質과 이에 作用하는 메카니즘의 分析에 卽 營力, 成因의 立場에 따라, 또 晚壯年期中나 老年期地形을 다루는데는 四大要素中에서 高度, 傾斜, 起伏, 斜面形等에 重點을 두어서 形態의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 金相昊: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出版部 1966.

16) 朴魯植: 漢江下流地形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 慶熙大 論文集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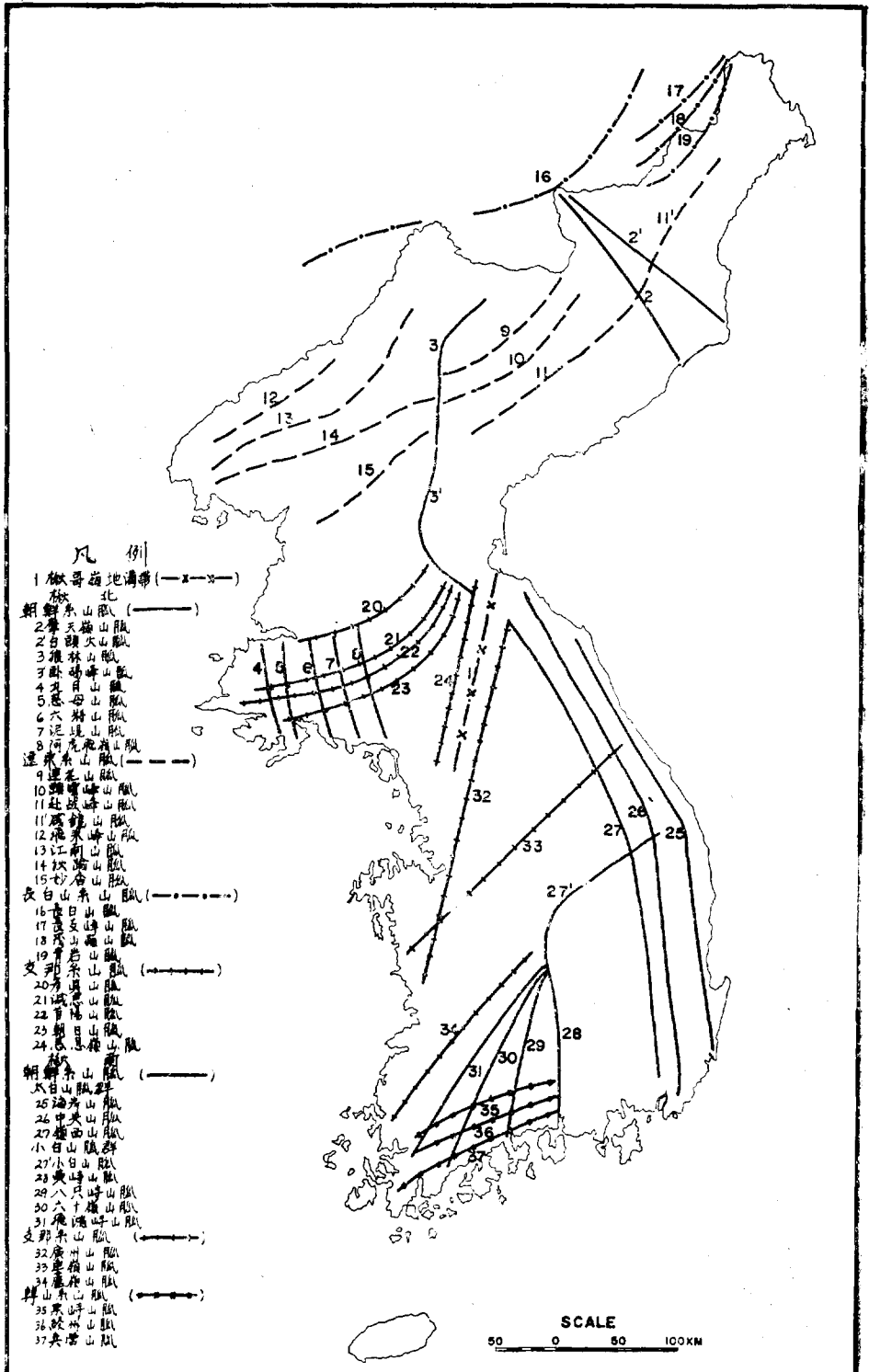
17) 朴魯植: 韓國山地綜合開發에 關한 研究, 太白山地域의 農業的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慶熙大, 國土綜合開發 研究所, 1969.

<그림 1 >

우리 나라 山脈系區分圖

우리 나라 山脈의 區分에 있어서는 日本地理學者 小藤文次郎에 依하여 「山嶽論(1901, 1902)」에서 朝鮮系山脈, 遼東系山脈, 支那系山脈으로 한 것이 始祖라 하겠다.

著者는 이것에 依하여 全國의 山脈을 系列로 區分을 하여 作圖를 試圖하였다. 前記 三大區分以外에 長白山脈, 韓山系 山脈도 있다, 朝鮮系의 太白山脈群의 內地山脈은 嶺西山脈(27)으로 改稱한 것을 特記한다.



以上과 같이 地形을 다루는데는 自然要素 自體에 여러 側面이 있는 同時에 地形을 다루는데에도 여러 立場이 있다. 過去 우리 나라의 地形研究가 地形區에 依하여 系統的으로 다루어졌다는 것보다는 그 時代的인 要請에 따라 研究者의 立場에 依하여 散漫하게 다루어졌음은 否認 못할 事實이다.

2) 應用地形學의 一分野로서 研究

地形의 科學的 研究에 있어서 前記한 바와 같이 地形의 主要四大要素(形態, 構成物質, 營力 및 成因, 形成時期)는 어느 特定地域에 있어서 地史的 所產으로 有機的으로 結合이 되어 있다.

이러한 有機的인 關聯은 地形의 系統的 分類는 勿論이거니와 地形分類나 土地分類에의 應用에 있어서도 主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地形分類의 本來의 目的은 前記한 바와 같이 土地自然의 綜合的 또는 系統的 把握을 通하여 土地의 合理的인 利用, 開發, 保全 等의 計劃을 爲한 土地分類에 貢獻하는데 있다.

最近 地理學뿐만 아니고 地域現象의 研究對象에 對한 手段으로 地域區分이 地形分類나 地形地域區分과 같이 地形을 對象으로 하는 所謂 自然地域區分으로 擡頭되었다.

地理學에 있어서는 어느 地域의 地域性을 把握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地域은 계통적인 地域區에 依하여 明確히 把握이 된다.

또 어느 地域의 人間活動이라는 것도 그 地域의 地形을 무대로 展開되는 것이 많아서 人文的인 面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러한 地理區는 自然要素의 綜合 卽 土地區分 또는 自然地域區分으로 다루어지나 그 中에서 重要한 要素가 되는 것은 地形이다.

過去 우리나라 地理區가 地形이라는 單一的要素에 依하여 區分된 原因도 바로 여기에 있다. 現在도 그러한 地理區를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것은 遺憾이다. 우리 나라의 地理區가 地形區에 依하여 區分된 것과 같이 우리 나라의 行政區는 地理區에 앞서 地形要素만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行政區와 地形과의 密接한 關係는 地理區

와 地形과의 不可分한 關係를 招來케 되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地理區는 土地區分이나 自然地域區分이 있어서 그 中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가 되는 地形區가 있어야만이 비로서 成立이 可能한 것이다. (表 2 圖 우리나라 切峰面 區分)

Ⅲ. 韓國 地形設定方法 및 指標

우리나라 地形區設定方法에 있어서는 韓國地形區設定에 따라 여러가지 立場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實地로 地形區設定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地形區의 特色이 잘 나타날 수 있는 要素에다 重點을 두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地形의 四大要素인 形態, 構成物質, 營力 및 成因, 形成時期에다 區分이 있으나 問題는 前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地形의 四大要素의 有機的인 結合關係.

우리 나라에서는 이 중에서도 現地形을 構成하는 支配的인 역할을 하는 要素를 發見하여야 한다.

韓國地形區設定에 앞서 外國의 代表的인 地形區設定을 보면

1) 經濟的 地形區分

土地의 高低 起伏 및 그 配列狀態에 依한 區分 D.L.Buck의 支那地形區(土地利用上의)¹⁸⁾가 있고 過去韓國의 地形區가 이러한 方法을 使用하였다.

2) 地體構造에 依한 地形區分

美國과 같은 큰 나라에 있어서는 大地形이 地體構造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W.D.Davis¹⁹⁾나 N.M.Fenneman²⁰⁾의 大區分에 있어서 組織을 主要素로 하였고 韓國에 있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小藤, 中村博士에 依하여 採擇되었다.

3) 地形의 四大要素(形態 物質構造, 成因 및 營力形成時期)

地形學의 立場에서 地形의 特性을 招來한 主要因을 중심으로 他要因을 考慮한 區分

N.M.Fenneman의 前地形區의 中·小單位區分

18) Buck, D.L.; Land Utilization in China, 1939.

19) Davis, W.D.; Notes on the description of land forms, Bull. Amer. Geo., Soc., 42—1910.

20) Fenneman, N.M.; Physiographic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Amer. Associ. Amer. Geo. 6—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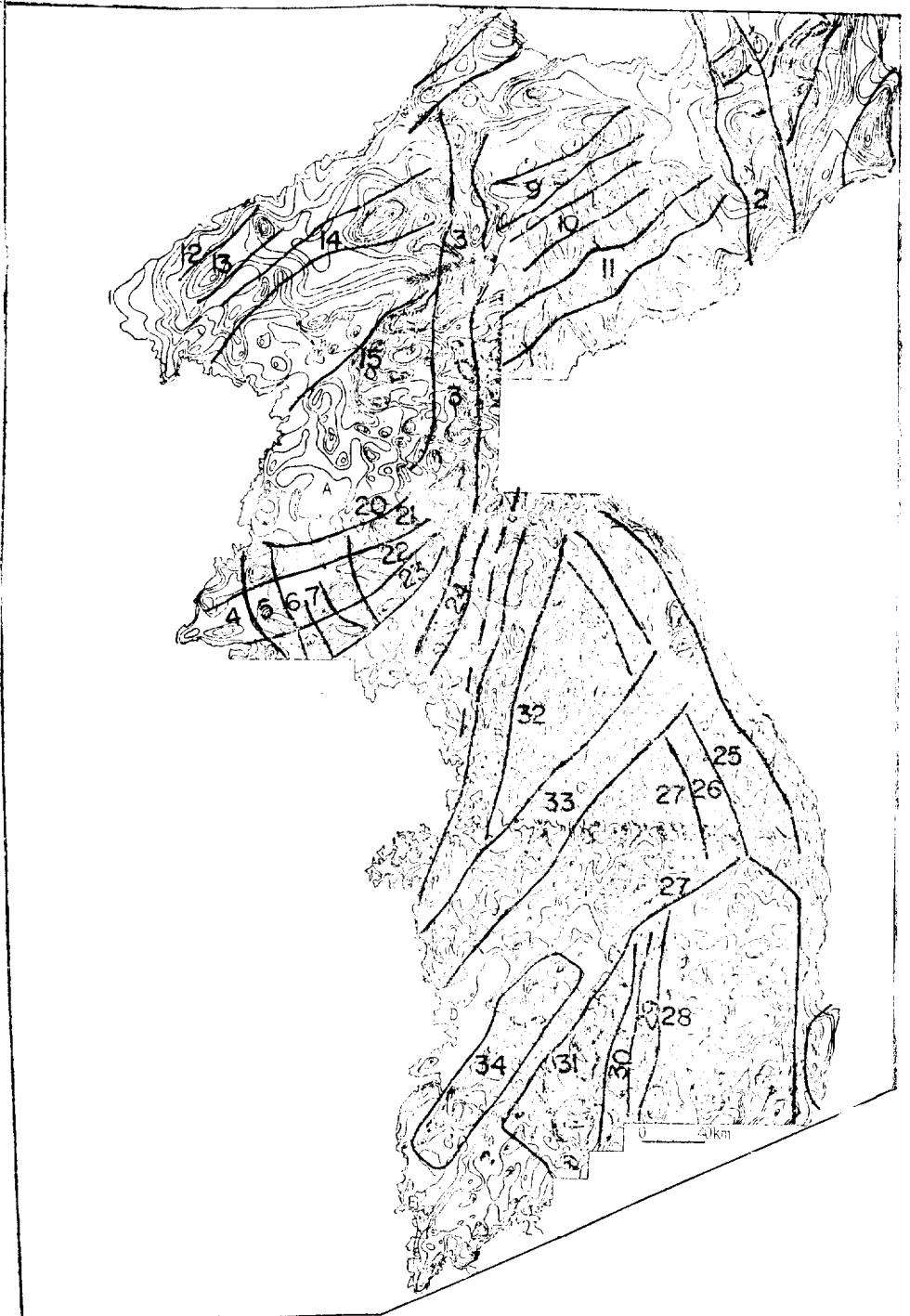
<그림 2>

韓國切峰面區分圖

切峰面の 높이는 地盤運動과 그 後의 侵蝕으로 因한 山頂削割의 低下量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地體構造가 東海側에 急傾斜를 西海側에 緩傾斜面을 向한 非對稱的傾動地塊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太白山脈群이나 蓋馬高原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 오랜 侵蝕作用으로 東海側에는 高位平坦面이 西海側에는 低位平坦面이 發達되고 곳곳에 殘丘도 나타나 있다.

南韓에서는 支那系의 廣州山脈, 車嶺山脈, 蘆嶺山脈과 朝鮮系의 太白山脈群과 小白山脈群이 顯著히 나타나고 嶺南盆地와 湖南平野와 같이 低下된 切峰面과 對照的이다.

北韓에서는 蓋馬高原과 西海岸의 遼東支那山脈의 區分이 顯著하다.



또 渡邊光의 日本地形區²¹⁾의 中單位등이다.

4) 目的的區分

地形分類의 本來 目的은 土地自然의 綜合的 또는 系統的인 把握을 通하여 土地의 合理的인 利用開發保全등의 計劃을 爲한 土地分類에의 貢獻에 있다.

또 應用地形學의 見地에서 土地分類 또는 土地區分을 前提로 하는 基本資料로서 重要하다 할 때에는 어느 目的에 依하여 區分된다.

日本西村嘉助의 應用地形學(1969)이 그 좋은 例이다.

著者が 試圖한 地形區分設定에 使用한 基本圖는 다음과 같다.

◎…표는 著者が 作圖한 것

○…引用할 것

- | | |
|-------------|--------------|
| ○韓國地體構造圖 | ○韓國切峰面圖 |
| ○韓國地質分布圖 | ◎韓國切峰面區分圖 |
| ◎韓國地質區分圖 | ◎韓國傾斜分布圖(分圖) |
| ◎韓國高度別區分圖 | ○韓國土壤區分圖 |
| ◎韓國山脈分布圖 | ○韓國地形區分圖 |
| ◎韓國河系網圖 | ○韓國地理區圖 |
| ◎韓國盆地高原分布圖 | ○韓國生物區圖 |
| ○韓國農業區分圖 | ○揚口春川부근切峰面圖 |
| ◎智異山地形區分圖 | ○面牧洞切峰面圖 |
| ◎首都圈地形區分圖 | ○禮峯山, 陶谷切峰面圖 |
| ◎大關嶺地形區分圖 | |
| ◎漢江下流地形區分圖 | ○濟州島土地利用圖 |
| ◎濟州島地形區分圖 | ○濟州島土壤區分圖 |
| ◎五大江流域土地利用圖 | |
| ◎平昌地郡地形區分圖 | ○中部朝鮮切峰面圖 |
| ○忠州附近切峰面圖 | |

이것에 使用된 地圖 및 地形, 地質圖는

- ◎標는 主要地圖
- ◎二萬五千分之一地形圖
- ◎五萬分之一地形圖
- 二十萬分之一地形圖
- 二十五萬分之一 立體地形圖(地形區分最小地形單位設定區分)
- 五十萬分之一地形圖
- 百萬分之一地形圖
- 百萬分之一地質圖

} 微地形分類

◎二百萬分之一地形圖(韓國地形區의 作圖)

地形分類의 一般的인 方法으로는 N.M. Feneman(1916)의 U.S.A.의 地形區分이나 日本의 渡邊光(1952)의 日本地形區에서 보는 것과 같이 下降의 分類方法과 上昇의 分類方法이 있다.

1) 下降의 分類方法

이 方法은 研究對象地의 廣域을 카바하는 大單位地區를 地體構造나 地質構造에 依하여 設定하여 이것을 다시 地形의 四大要素(形態, 構成物質, 營力 및 成因, 形成時期)를 有機的으로 結合시켜 이에 依하여 地域的인 相違에 着眼하여 順次로 中單位地形區, 小單位地形區로 細分하는 方法이다. 이것은 어느 地域의 地形特色을 系統的으로 區分하는 方法이다.

2) 上昇의 分類方法

下降의 分類方法에 對하여 이 方法은 主로 地形分類에 使用하는 方法이다.

最小單位의 地形單位를 設定하여 이러한 獨立된 個個의 地形單位를 綜合하여 中單位地形區로 다시 이것을 大單位地形區로 設定하는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에 依하여 地表面은 몇 個의 等質의 地形單位의 綜合에 依하여 構成된다고 보며 最小의 地形單位는 같은 性格을 內包한 地形을 設定하여 그 地域的인 넓이를 잡아 異種의 地形과 境界線을 劃定함으로써 認定이 된다.

그러면 實地로 韓國地形區를 區分하는데는 첫째로 最小의 地形單位를 어떠한 指標과 基準에 依하여 設定하였느냐가 問題가 되고 둘째로 地形 區分의 境界를 어떻게 劃定하였느냐가 問題가 되고,

세째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측척의 地圖를 使用 하였느냐가 問題가 된다.

이 以外 地形單位의 結合體系化에 依하여 地形地域의 地理區를 設定하는 境遇에 指標選擇方法도 검토되어야 한다.

前記한 地形區分에 가장 中心問題가 되는 最小地形單位設定, 地形區劃定, 地形區分에 使用되는 基本地圖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地形區設定에 獨立的 個別的인 役割도 있기는 하나 主

21) 渡邊光: 日本地形區, 自然地理, 應用地理 1卷, 地形, 古今書院, 1961.

要한 점은 이러한 要素條件이 서로 어떻게 有機的인 聯關下에 作用을 하는가가 問題이다. 따라서 著者는 이러한 要素條件을 綜合하여 實例로서 論說코져 한다.

韓地形에 있어서 最小地形單位라면 地形分類에서 上昇的分類方法이며 즉 最小로 區分되는 어느 地域의 微地形이며에 依한것 最小區分이라는 것은 微地形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地形의 目的이나 種類에 따라서 各種으로 區分된다.

韓國平野에서 例를 들면 平野에는 堆積平野와 侵蝕平野가 있다. 堆積平野에 있어서 氾濫原(Flood plain)은 洪水時 하천의 범람으로 연안 일대가 砂礫, 土砂, 粘土, 泥土 등을 堆積하게 된다.

이 범람원을 微地形區分을 한다며는 自然堤防(Natural levee) 背後低濕地(Back marsh) 河跡湖 또는 牛角湖(Ox bow lake) 등이며 輸域, 鴨綠江下流, 吉州, 北青, 咸興, 永興, 安邊, 安州 大同江下流, 載寧, 黃州, 延白, 坡州, 金浦, 平澤, 烏山, 安成, 長湖院, 鴻門, 禮唐, 美湖, 江景, 論山, 舒川, 榮州, 安東, 醴泉, 成昌, 尙州 善山, 金海, 密陽, 昌寧, 宜寧, 昌原, 咸安, 泗川, 安康, 金堤, 沃溝, 新泰仁, 羅川, 光州, 靈光, 平野 등에서 共通의으로 나타난다. 한편 沖積三角川(Alluvial delta)케도 이와같은 微地形이 있으며 이 以外에 頂置層, 前置層, 底置層으로 區分하며 豆滿江三角洲, 大渚面三角洲에서 追究된다. 沖積扇狀地(Alluvial fan)은 韓國에서는 分布가 極히 制限되어 楸哥嶺地溝帶의 釋王寺, 兄山江地溝帶의 佛國寺扇狀地가 있고 天井川, 末無川, 野溪, 網狀河川등의 微地形이 있다. 扇狀地面은 地形과 土地利用面에서 扇頂, 扇央, 扇端, 扇測으로 區分한다.

侵蝕平野의 準平原도 韓國에 있어서는 分布가 制限되어 樂浪, 驪州, 富平, 黃登 등이 代表的이고 原初, 終末 周邊隆起準平原으로 區分되고 孤立島狀丘陵과 硬岩, 原地殘丘, 平頂峰(Flat topped mts;)등의 微地形은 共通性的 最小地形單位이다.

韓國의 山地는 長久한 期間 安定된 地形이 剝削을 받아서 侵蝕過程時期가 大部分 晚壯年내지 老年山地가 大部分이다.

이러한 晚壯年山地(Late mature mts.)는 一名從順山形(Subdued form)이라고 하며 山麓에 緩斜面の 發達이 良好하며 Pediment, 麓肩面(Alluvial slope) 崖錐(Talus) 山麓階(Piedmont bench land)등의 微地形區로 區分된다.

抱川, 面牧洞, 陶谷, 春川, 楊口, 南漢山, 北麓, 鞍山, 鷹峰, 求禮 등이 代表的이다.

盆地에 있어서는 山間曲降, 侵蝕, 高原性盆地로 區分되며 盆地內는 現在 侵蝕堆積作用이 계속되어 前者는 Pediment 後者는 扇狀地(Fan) 麓肩面(Calluvial slop) 崖錐(Talus) 등의 微地形으로 細分된다. 雲峰, 亥安, 潭陽, 居昌, 義城, 報恩, 淸州, 鎭川, 楊口, 晉州, 서울 등이 代表的이다.

海岸地形에 있어서는 東海岸은 隆起海岸, 南海, 西海岸은 沈降海岸에는 砂洲(Sand bar) 海岸外洲(Offshore bar), 潟湖(Logoon), 海岸段丘(Coastal terrace)등이 南海, 西海岸의 沈降海岸에는 海橋(Sea arch), 岬角(Promontary), 陸繫砂洲(Tombalo), 陸繫島(Land trid island), 溺谷(Drowned valley)과 大陸棚(Continental shelf) 등의 微地形이 發達되었다.

끝으로 韓國山脈中에는 褶曲山脈과 斷層山脈 地塊山地등이 있고 斷層山脈中에는 地壘(Horst) 地溝(Graben)등으로 區分된다. 또 一般 山脈中에는 高位, 中位 低位平坦面과 殘丘等으로 區分된다. 太白山脈中的 中央山脈은 地壘 六百山은 高位, 大和는 中位, 嶺東, 驪州地方은 低位平坦面이 發達되고 金剛山은 代表的인 殘丘이다.

以上과 같이 이러한 微地形이 地形의 最小單位가 된다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러한 微地形을 全國地形區設定에 있어서 總網羅한다는 것은 國內外를 막료하고 있을 수 없으며 또 作圖上不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全國地形區分 設定에 있어서 地域的으로 微地形의 研究로서 區分이 必要하다고 본다.

적어도 全國地形區에 있어서는 이러한 微地形이 結合되어서 適正한 地形單位가 構成 되도록 上昇的 分類方法에 依하여 綜合하여 適當한 地形單位를 樹立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서는 適正한 地形圖를 縮圖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因하여 自然 消滅되는 地形이 생기게 되어 篩分作業이 必要하다. 따라서 適正한 縮尺의 地圖使用이 必要하다는 것을 다른말로 表現하여 實例를 들면 地圖는 마치 어느 目的에 따라 選別할라는 土壤의 構成 物質을 여러 種類의 篩기 依하여 篩分하는 篩기 技能과 같다고 본다.

地形區分도 그 目的에 따라서 地圖는 地形單位選別的 濾過的 역할을 하게 된다.

著者は 우선 二萬五千分之一 또는 五萬分之一 地形圖에 依하여 全國地形을 微地形區分을 試圖하여 이것을 二十五萬分之一 縮尺의 地形圖에 接쳐서 篩分을 하여 보았다.

대부분의 微地形은 自然消滅이 되고 選別된 地形單位는 堆積地에서는 扇狀地(Alluvia fan 釋王寺, 佛國寺) 三角洲(Alluvial delta, 豆滿江 下流, 大渚面)가 侵蝕地形에서는 準平原(Peneplain, 樂浪, 富平, 驪州, 黃登)이 남게 되고 平野中에서는 郡單位 平野(金浦, 坡州, 平澤 등)는 消滅될 염려는 없으나 面單位程度는 消滅될 수 있는 地形單位라 潛在地形으로 確保를 하였다. 烏山, 長湖院 平野 등이 그 例이며 盆地도 平野와 같이 郡單位는 問題가 않되고 面單位 盆地는 亦是 潛在地形으로 되는 亥安, 雲峰, 合水, 白岩, 古仁洞, 平康, 淸安 등은 確保하였고, 海岸에서는 段丘(盈德), 低地(平海, 竹邊)등이 選別된 最小地形單位이다.

이러한 地形은 典型的인 單獨의 地形單位를 충분히 構成할수가 있다고 認定된다. 地形圖 使用에 있어서 二十五萬分之一地形圖는 우연히 使用하게 된 地圖가 아니고 여러 縮尺의 地圖를 順序의 順序로 使用하는 過程에서 全國地形區에 適正한 縮尺의 地圖로 얻은 것이다.

地形區分の 作圖過程에 있어서 二萬五千分之一, 五萬分之一, 二十萬分之一, 二十五萬分之一, 一百萬分之一, 二百萬分之一, 地形圖로 縮少함에 따라 消滅되는 地形은 自然無視되는 地形으로 認定 選別된 地形單位의 適正化를 企圖하였다.

二十五萬分之一 地形圖에서 捕捉된 地形單位는 그대로 살려서 把握을 하였고, 消滅된 地形中에서는 前記한바와 같이 扇狀地나 面單位의 平野 盆地 등은 消滅地形이지만 所謂 潛在地形으로 再現시켜서 單獨 地形單位를 충분히 構成할 수 있으면 確保하였다.

이렇게 해서 選別된 地形單位는 他地形과 嚴格히 區別이 되어 地形境界를 劃定하는 基本標準이 되게 되었다.

平野나 丘陵地가 交錯된 地形에 있어서는 兩地形單位로 區分할 境遇에는 高度나 面積의 비율을 計算하여 單獨의 地形單位를 把握하였다.

또 可能하면 應用地形的 見地에서 從前부터 慣用되어온 盆地, 平野丘陵, 低地高原, 開析高原, 地溝帶, 玄武岩台地, 干渴地, 主要島嶼, 半島, 沿岸峽地, 山脈등을 地形의 地域的 分布를 考慮하여, 郡單位는 그대로 擇하였고 특수한 單獨 地形單位를 構成할 수 있는 地形에 限하여서만 再現 地形으로 面單位까지 擇하였다.

○大單位地形區

韓國에 있어서 大單位라고 하는 것을 韓國內에 限하여 最大單位라는 뜻이다. 大單位라 해도 美國 太平洋山系의 한 地形區에 不過하며 이와 같이 좁은 地形區內에 複雜한 各種 地形이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地形區의 地形的인 性格에 따라 差異가 크다.

이와 같이 規模가 外國에 比하여 너무도 적은 地形을 區分하는데 있어 地體構造나 地質構造 등의 組織을 指標로 삼는다는 것은 適當치 않다고 生覺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地形은 아시아의 地質構造를 考慮치 않고는 把握키 困難하다는 것은 前記한 Richthöfen의 蓋馬地塊²²⁾에서 指摘한바도 있고 또 小藤文次郎의 楸哥嶺地溝帶²³⁾ 및 韓國山脈의 走向을 朝鮮系, 遼東系, 支那系로 區分한 것과 地體構造上으로 地形區分한 것, 卽 I 楸北 II. 楸南(楸哥嶺溝帶로 區分) I. 楸北(韓國北部)을 다시 a. 蓋馬地塊 b. 古韓地塊 II. 楸南(韓國南部)은 a. 韓地塊라고 하였다. 韓國의 地形이 老年期的 從順地形이라고 하여 地形의 四大要素中地形의 形成時期에만 또는 營力에만 重

22) Richthöfen : 前掲書

23) 小藤文次郎 : 前掲書

點을 들 가능성이濃厚하다. 그러나 地形의 成因이나 韓國地形의 固有한 特性이 前記한 바와 같이 嶺南盆地나 蓋馬高原, 太白山脈系(朝鮮系) 沃川地向斜, 平南地向斜의 車嶺山脈, 廣州山脈 蘆嶺山脈(支那系) 江南山脈(遼東系)과 같이 地體, 地質構造에 左右된 것이 적지않다.

이러한 大單位 地形區의 地形特色이 地體, 地質構造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地形의 成因과 營力時期 또는 形態를 考慮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地形의 要素가 現地形의 特色을 特色있게 하는데 決定的으로 作用을 하였는가가 問題이다.

○ 中單位 地形區

中單位에 있어서는 前記한 바와 같이 地形의 四大要素의 結合에 의하여 또는 固有한 地形의 特性의 地域的 分布에 의하여 區分하였다.

이 中單位地形區에 있어서는 高原, 山地, 山脈群, 盆地群, 丘陵群, 大平野, 地溝帶 등으로 區分하였다.

이것은 高度別區分도 參酌하였다. 例를 들면 大單位嶺南盆지가 다시 琴湖盆地, 洛東江上流地域 小白西北山麓, 太白山脈山麓, 慶南平野등 中單位로 區分된 것은 地理區와도 一致되지만 高度別로 보면 山地(500m 以上) 丘陵(500m), 盆地, 平野(100m 以上) 山間 山麓등 地域的 格차가 있다.

이러한 中單位의 地形區中에는 山脈群이나 山脈이 많이 있다. 例를 들면 太白山脈群이나 小白山脈群, 咸鏡山脈, 蘆嶺山脈, 車嶺山脈 등 이러한 경우 關東地方에서의 太白山脈 嶺南地方에서의 太白山脈을 區分하여 地域的 分布를 통한 地形의 特色을 把握하는데 勞力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 山脈을 系統的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이 中單位地區의 地形에 있어서는 大單位보다도 地形의 成因 및 營力, 形成時期를 組織보다 더 重點을 두고서 다룬 것은 勿論이다.

○ 小單位地形區

前記한 中單位를 다시 小單位로 區分하여 微地形까지 다룬 것이며 이 小單位는 地形의 三要素中形成 보다는 形成時期에 時期보다는 成因과 營力을 物質構造를 통하여 究明하는데 重點을 두고 取扱한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韓國의 現

地形 즉 小單位의 地形區에 나타난 地形의 特性을 特徵있게 作用한 主要素를 發見 하는데 勞力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小單位의 地形에 있어 大單位에서의 組織이나 또는 中單位에서의 地形의 地域的 分布關係를 전혀 無視한 것이 아니고 充分히 參酌하였다.

小單位地形區內의 地形이 內的作用 보다는 侵蝕, 運搬, 堆積의 外的作用이나 侵蝕 輪廻의 時期 또는 岩石등에 의하여 差別侵蝕으로 特徵 있게 된것은 前記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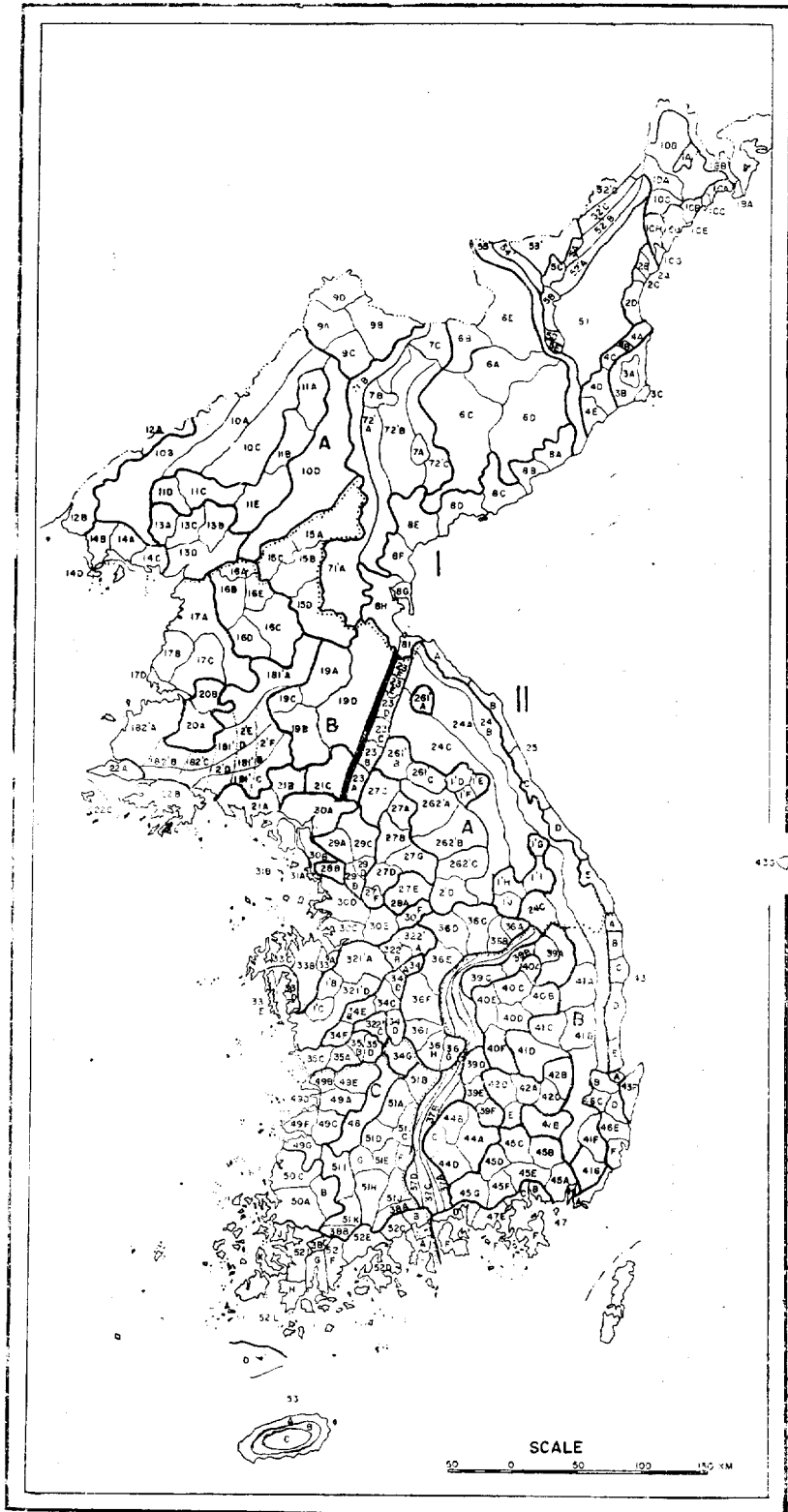
이러한 例는 中單位의 兄山江地溝帶를 蔚山灣 低地, 浦項灣低地, 慶州盆地, 佛國寺 扇狀地, 兵營丘陵으로 또 楸哥嶺地溝帶에 있어서 釋王寺扇地, 三防谷地, 鐵原高原, 玄武岩臺地, 京畿地方에서 驪州, 利川準平原, 富平準平原으로 太白山脈群의 中單位地形을 다시 海岸山脈, 中央山脈, 嶺西山脈으로 區分하고 中央山脈에서 地疊(Horst)를 區分한 것 등이다.

다만 地形區設定方法에 있어서 前記한바와 같이 大單位에서 小單位로 細分하는 下降의인 方法과 反對로 小單位를 綜合하여 大單位로 設定하는 上昇의方法이 있다.

地形의 固有한 特性은 어디까지나 地形諸要素의 有機的인 結合이 地域的 分布를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地形의 特性은 上昇하는 方法과 같이 最小單位의 地形을 究明하는데서 把握할수 있는 同時에 下降의 方法과 같이 大單位에서 中 小單位로 系統的으로 究明하는데서 把握이 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 方法을 兼用하여 地形區分을 試圖하였다.

地形區分의 目的에 따라서 下降의 方法은 地形을 科學的으로 研究하는 方法이고, 上昇의 方法은 土地의 利用, 開發을 前提로하는 地形分類의 基本的 資料로 研究하는 應用地形의인 方法이 된다.

小單位의 微地形區分問題는 前記한 바와 같이 二十五萬分之一地圖에다 걸어서 消滅되는 것은 除外되었다. 作圖上의 困難性을 避할 道理가 없어서 卽 三角洲(Delta)나 扇狀地(Fan), 準平原(Peneplain), 沖積平野(Alluvial plain)中等 地形의 特性을 獨立된 單位로 表示할 수 있는 單位까지 細分하고 沖積平野를 다시 氾濫原, 自然堤坊, 河跡湖, 背後低濕地 背後丘陵등으로 微地形으로 區



分하는것은 小單位地形을 研究하는데 讓步하고 韓國地形區 設定이라는 立場에서 不得이 無視할 수밖에 없다.

台灣地形區²⁴⁾와 같이 山地, 火山, 台地, 盆地 海岸을 함께 묶어 羅列하는 地形區分 方法은 地形의 地域의 分布를 中心으로 하는 立場에서 보면 止揚해야 한다.

韓國에서 例를들면 甲山高原과 鎭安高原, 雲峰高原이 各各 獨立되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羅列表記하였다면 地形의 地域의 分布의 뜻은 喪失하게 되며 이러한 高原은 그 地域에 있으므로 地域의 地域의 特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表 9圖)

Ⅲ. 韓國 地形區分

1. 楸 北

韓國 地形區分の 大構造線은 楸哥嶺地構帶(서울-元山 間의 花崗岩侵蝕谷)이다. 이 地溝帶의 北部를 楸北이라하고 反對로 南部를 楸南이라고 하며 地形의 顯著的 差異를 보이고 있다.

楸北은 一般的으로 山岳性이고 其中 蓋馬高原은 東海側에 急斜面을 滿洲側에 緩斜面을 向한 約 1500m 以上の 非對稱的 傾動地塊이며 그 一部는 豆滿江, 鴨綠江 兩江에 依하여 開析된 開析高原을 이루고 있으며 그 西部에 있는 平北山地는 이 高原보다 一段 낮은 約 600m 內外의 山地를 形成하고 있다.

이 高原 南部의 平南 黃海地帶에는 古韓地塊가 붙어 있다.

A. 蓋馬地塊²⁵⁾

前記한 바와 같이 이 高原은 淸川江口에서 咸興을 連結하는 線 以北의 地域을 말하며 斷層運動에 依하여 形成된 傾動地塊로 이 곳에는 遼東系, 朝鮮系, 長白系, 山系에 依하여 基本構造가 形成되어 있다.

1) 東北丘陵地²⁷⁾

이 丘陵地는 淸津, 會寧을 連結하는 地質構造線의 蓋馬地塊, 東北地帶로 約 500m 內外의 丘陵으로서 平安系의 狹炭層, 朝鮮系의 石炭岩統, 白堊紀의 花崗岩, 第三紀의 三紀層등 여러層의 地質構造를 갖은 것이 特色이다. (地形區分 說明 省略)

(1) 五龍川流域

平安系의 狹炭層이 分布되고 上流는 高原性開析盆地 下流는 遼東系의 溪谷에 谷底低地가 發達되었다.

(2) 豆滿江沿岸

이 沿岸은 蛇行으로 因한 沿岸低地와 下流의 三角洲(Delta)地帶로 되었다.

a. 豆滿江三角州(以下 小單位는 別途地形誌 篇에서 다룰 豫定임)

b. 豆滿江沿岸 低地

(3) 東海沿

岸北部는 主로 花崗岩, 南部는 結晶片麻岩으로 되어 島嶼, 灣入, 海蝕崖가 交叉된 所謂 中性海岸이고 南部는 沈降된 鏡成灣이 있다.

a. 雄基灣 低地

b. 羅津灣 低地

c. 梨津灣 低地

d. 沙津灣 低地

e. 城亭端丘陵

f. 花端丘陵

g. 高稜山端

(4) 高原性盆地群

이 盆地는 500~1000m의 高原性 開析盆地이다.

a. 會寧盆地

b. 行營盆地

c. 富寧盆地

鏡成灣沿岸 低地²⁸⁾

淸津에서 漁大津까지의 沈降된 灣으로 海底에 溺谷의 痕跡이 있다. 이곳으로 注入되는 여러 河川이 同一 中心으로 集中되고 100m의 等深線이

25) 西田與四郎, 帷子二郎: 日本地圖集, 台灣地形區, 東洋圖書, 日本 1940

24) 中村新太郎: 朝鮮地質構造論 序說地球 8卷 p. 327 (日本 1927)

26) 小藤文次郎: 韓國北部의 地勢, 地學雜誌, 14卷, p. 399 日本 1902

27), 28) 立岩巖: 極同, 明川, 七寶山 及 古站洞幅, 朝鮮地質圖 4輯, 日本 1925.

中村新太郎: 日本地理大系, 朝鮮篇, 朝鮮의 自然地理, 地貌篇, 改造社, 日本 1930.

鄭昌熙: 地質學概論, 韓國地質概要, 博英社. 서울 1958.

切迫하고 있고 南部에는 七寶山地塊의 海岸이 있다.

- a. 淸津沿岸 丘陵
- b. 輸城平野
- c. 羅南盆地
- d. 鏡城低地²⁹⁾

3) 七寶山地塊

이 地塊는 東海岸側에 急斜面을 內陸側에 緩斜面을 向하고 있다. 白頭山脈中에서 噴出한 七寶山(906m) 火山이 있다.

이 地塊와 蓋馬地塊 中間은 吉州 明川地溝帶에 依하여 切斷되었고 그 後에 七寶火山의 噴出로 熔岩이 低地를 埋沒하였다.

- a. 七寶山火山岩地
- b. 七寶丘陵地
- c. 舞水端丘陵

4) 吉州 明川地溝帶³⁰⁾

이 地溝帶는 漁大津과 城津間의 狹長한 低地로 地體構造上 楸嶺地溝帶 南은 永興, 北은 鏡城灣의 沈降과 連結이 된다.

第三紀의 地塊運動으로 形成된 斷層谷에는 第三紀 含炭層이 狹在되어 있고 그 以外 七寶山의 粗面岩, 玄武岩의 七寶山統이 덮혀 있다.

이 地溝帶의 北部에는 漁郎川이 南部에는 吉州, 南大川이 南流하여 各 平野를 展開하고 있다.

- a. 漁郎川 低地
- b. 永安低地
- c. 明川低地
- d. 吉川平野
- e. 城津灣 低地

5) 茂山高原

이 高原은 南에는 咸鏡山脈(遼東系)北에는 長支峰山脈(長白山系)西에는 摩天嶺山脈(朝鮮系)에 圍繞된 高原으로 豆滿江의 西頭水, 延白水, 小

紅端水, 西乙水의 支流와 鴨綠의 가림川이 惠山鎭附近으로 注入함에 依하여 開析된 高原과 白頭山 東南部에는 幼年期의 熔岩台地로 되어 있다. 咸鏡山脈은 壯年期山으로 韓國의 알프스라고 불리운다. ³¹⁾

- a. 延水高地
- b. 延岩高原盆地
- c. 楡坪洞高原盆地
- d. 白岩高原盆地
- e. 合水高原盆地

1. 咸鏡山脈(遼東系)³²⁾

蓋馬高原 東南邊을 圍繞하는 遼東系山脈이며 冠帽峰(2541m)을 비롯하여 2000m 以上の 諸峰의 峻嶺은 豆滿江支流와 東海岸으로 注入하는 北大, 南大川등에 依하여 壯年期山地로 侵蝕되어 白岩, 合水와 같은 1000 m 以上の 幼年谷을 形成하여 前記한 바와 같이 韓國의 알프스라 불리운다.

2. 長白山脈群³³⁾(長白系)

豆滿江 會寧附近에 集中되는 長支峰, 茂山, 靑岩山脈과 豆滿江越岸의 長白山脈은 咸鏡山脈이 遼東系에 對하여 그 走向이 東西이기 때문에 長白山脈系이라고 한다.

- a. 靑岩山脈
- b. 茂山山脈
- c. 長支峰山脈
- d. 長白山脈

3. 白頭山熔岩 台地³⁴⁾

洪積世에 白頭山脈上에서 噴出된 流動性 玄武岩으로 台地를 形成하였다. 그範圍는 西는 虛川江, 東은 西頭水, 南은 端川의 北大川上流, 北은 滿洲의 寧古塔에 이 르며 白頭山麓은 天秤이라 稱하며 大部分이 幼年期台地이다.

4. 白頭火山脈(朝鮮系)³⁵⁾

이 火山脈은 朝鮮系의 摩天嶺山脈과 平行 重

29) 中村新太郎: 前掲書

姜錫午: 概觀韓國地理, 豐川文化社, 서울 1959.

30), 31) 金玉準: 南韓中部地域의 地質과 地球論, 연세대, 1969.

小藤文次郎: 山嶽論, 1901~1902.

山田澄良: 朝鮮의 山脈, 地理教育, 3 號, 서울, 1929.

松田甲: 朝鮮第一의 高山 咸北의 冠帽峰, 朝鮮 9月號, 1930.

32), 33) 川山繁太郎: 白頭山과 白頭山脈, 文敎의 朝鮮, 10月號, 1926.

鄭昌熙: 前掲書

34) 鄭昌熙: 前掲書

中村新太郎: 前掲書

35), 36) 中村新太郎: 前掲書

疊되며 白頭火山에서 始作되어 大小臙脂峰, 間白山 北南胞胎山을 일으키고 七寶地塊의 七寶山을 거쳐 멀리 東海의 鬱陵島, 聖人峰에 이르고 있다

5. 摩天嶺山脈(朝鮮系)³⁶⁾

白頭火山脈과 平行重疊되어 咸鏡南北道界를 따라 南北으로 走向하는 朝鮮系山脈으로 遼東系의 咸鏡山脈과 交叉되는 곳에 壯年期의 韓國 알프스山地를 이루고 있다.

6) 三水 甲山開析高原³⁷⁾

이 高原은 虛川江流域의 高度 1500~2000m되는 開析高原으로 茂山高原과 赴戰高原中間은 高度 500~1000m 도는 1000~1500m의 山地로 地質은 切斷된 始生代의 花崗片麻岩이며 三水北部는 火山岩으로 되어 있다.

- a. 甲山高原盆地
- b. 三水高原盆地
- c. 豐山高原盆地
- d. 楊坪高原盆地
- e. 三水火山岩地

7) 長津 赴戰開析高原³⁸⁾

이 高原은 東은 三水, 甲山 開析高原 西는 朝鮮系의 狼林山脈, 南은 遼東系의 赴戰山脈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長津赴戰高原으로 分離 된다. 高度 1500~2000m의 始生代 花崗片麻岩이다.

- a. 赴戰高原盆地
- b. 長津高原盆地
- c. 魚面狀高原盆地

1. 朝鮮系 山脈群

- a. 狼林山脈
- b. 臥禡峰山脈

2. 遼東系 山脈群

a. 頭雲峰山脈

b. 蓮花山脈

c. 赴戰嶺山脈

8) 赴戰嶺沿岸 低地³⁹⁾

이 地帶는 蓋馬高原이 海岸側으로 急傾斜를 갖고 있어 이곳에서 흘러 내리는 端川의 北大川, 南大川, 北青의 南大川, 咸興의 東西城川江 新上의 금진江, 安邊의 南大川 등에 依하여 開析되어 上中流는 必從谷이 下流에는 冲積平野가 發達되며 地質은 南部는 始生代의 花崗片麻岩이 北部는 花崗岩 結晶片岩이 分布되어 侵蝕에 差異가 있다.

- a. 端川沿岸 低地
- b. 利原沿岸 低地
- c. 北青平野
- d. 洪原沿岸 低地
- e. 咸興平野
- f. 永興平野
- g. 虎島半島
- h. 永興灣沿岸 低地
- i. 安邊平野

9) 慈城 厚昌開析高原⁴⁰⁾

中江鎭을 三角形의 頂點으로 하고 慈城 厚昌을 連結하는 底邊 三角形으로 된 約 1000m의 高原은 鴨綠江의 支流인 慈成江에 依하여 開析 되었다.

- a. 慈城高原
- b. 厚昌高原
- c. 佳山洞高原
- d. 中江鎭火山岩地

10) 遼東系 山脈群⁴¹⁾

中村新太郎: 甲山長津高原의 南緣, 1925.

小藤文次郎: 朝鮮北部의 地勢, 地理雜誌, 14卷, 日本 1902. p. 399.

37) 山田澄良: 前掲書
 中村新太郎: 前掲書
 姜錫午: 前掲書

38) 山田澄良: 前掲書
 中村新太郎: 前掲書
 姜錫午: 前掲書

39) 山田澄良: 前掲書
 中村新太郎: "
 姜錫午: "

40) 山田澄良: 前掲書
 中村新太郎: "
 姜錫午: "

41) 山田澄良 "

이 山脈群은 平北의 鴨綠江에 併行하여 朝鮮系의 狼林山脈에서 分岐되어 東北東에서 西南西走向으로 달리는 遼東系 山脈으로 北에서 江南山脈, 飛來峯山稜이 있어 急傾斜를 北으로 向하고 있으며 그 南部에는 狄隄山脈이 있어 南側에 急斜面을 이루고 있다. 淸川江, 構造線에 併行하여 달리는 妙香山脈은 狄隄山脈과 같이 南側에 急斜面을 向하고 있다. 이 山脈들은 東部에서는 1000m 以上이지만 西部로 갈수록 低夷한 500m 内外의 丘陵으로 變化한다. 花崗片麻岩이나 淮片麻岩의 剝理의 方向이 나타나 있다.

- a. 江南山脈
- b. 飛來峯山稜
- c. 狄隄山脈
- d. 妙香山脈

11) 平北山地⁴²⁾

이 山地는 遼東系의 江南, 狄隄, 妙香山脈 등이 鴨綠江과 淸川江과 그 支流에 依하여 開析되어 山間에 侵蝕盆地를 形成케 되었다.

- a. 江界盆地
- b. 古仁洞盆地
- c. 大隄洞盆地
- d. 大館洞盆地
- e. 熙川盆地

12) 鴨綠江沿岸 低地⁴³⁾

이 低地는 鴨綠江支流인 忠滿江合流地點에서 下流의 穿入蛇行에 의하여 形成된 沿岸 低地와 陂의 水沒地와 下流의 冲積地로 되어있다.

- a. 碧潼水沒地
- b. 新義州平野

13) 淸川江流域 低地⁴⁴⁾

中村新太郎 : "
姜錫午 : "

42) 山田澄良 : 前掲書

中村新太郎 : "
姜錫午 : "

43) 山田澄良 : 前掲書

中村新太郎 : "
姜錫午 : "

44) 山本惣太郎 : 新日本地誌, 古今書院, 東京

山藤文次郎 : 前掲書
山田澄良 : "

45), 46) 山本惣太郎 : 前掲書

山藤文次郎 : "
山田澄良 : "

47) 中村新太郎 : 前掲書

平北의 遼東系山脈과 淸川江사이에는 그 支流인 大寧江, 九龍江이 있어서 上中流에는 侵蝕盆지가 下流에는 冲積地가 展開되었다.

- a. 龜城盆地
- b. 雲山盆地
- c. 泰川盆地
- d. 安州盆地

14) 平北 西海岸 低地⁴⁵⁾

平北 鴨綠江口와 淸川江口 中間의 西海岸 低地는 始生代의 長期間 進行된 侵蝕으로 1000m 以下の 丘陵地로서 干拓地, 半島, 島嶼가 交叉된 海岸이다.

- a. 宣川盆地
- b. 鐵山丘陵
- c. 定州盆地
- d. 身彌島 其他島嶼

B. 古韓地塊⁴⁶⁾

蓋馬地塊以南의 平南, 黃海의 平安系, 朝鮮系 地質構造地며 支那系, 遼東系의 方向을 갖인 兩地塊의 中間에 介在된 中間性 楔狀地塊이며 兩系의 山脈을 西海岸의 形狀에 作用을 하고 있다

15) 平南 東部山地⁴⁷⁾

이 山地는 主로 朝鮮系의 狼林山脈이 南北으로 連結한 500~1000m의 山地로서 北部 山頂에는 祥原系의 硬岩의 1000m 以上の 殘丘가 있고 大同江上流에 依하여 開析된 山間侵蝕盆지가 展開되었다.

- a. 寧遠盆地
- b. 孟山盆地
- c. 德川盆地

d. 陽德盆地

16) 平南 中部山地⁴⁸⁾

平南 東部山地的 以西의 100~500m 丘陵地로 大石灰岩統地帶는 溶蝕盆地가 形成되었다.

- a. 价川盆地
- b. 順川盆地
- c. 成川盆地
- d. 江東盆地
- e. 新倉盆地

17) 平南 西部丘陵 低地⁴⁹⁾

이 地域은 大同江下流地域으로 約 100m의 削剝丘陵地와 以下의 冲積地로 되어있다. 其中 樂浪準平原은 中和, 力浦一帶의 石灰岩 削剝地로 蓋馬高原의 高位坦面에 對한 低位平坦面으로 하나의 周邊 準平原을 形成하며 正方山은 一種의 硬岩의 殘丘이다.

- a. 樂浪準平
- b. 龍岡 江西丘陵地
- c. 大同江下流平野
- d. 廣梁灣干潟地

18) 支那系 朝鮮系 山脈群⁵⁰⁾

古朝鮮地塊에는 支那系 山脈과 朝鮮系 山脈群이 交叉되어 있다.

- | | |
|------------|-----------|
| 1. 支那系 山脈群 | 2. 朝鮮系 山脈 |
| a. 彥真山脈 | a. 九月山脈 |
| b. 滅惡山脈 | b. 慈母山脈 |
| c. 首陽山脈 | c. 元將山脈 |
| d. 朝日山脈 | d. 泥峴山脈 |
| e. 黃龍山脈 | e. 阿虎飛嶺 |
| f. 馬項山脈 | f. 馬息嶺山脈 |
| g. 天仙山脈 | |
| h. 斗介山脈 | |
| i. 孟州山脈 | |

19) 黃海 東部山地⁵¹⁾

이 山地的 北部는 500~1000m 山地로 大同江

禮成江에 依하여 開析되고 南部는 100~500m의 丘陵地며 侵蝕地가 發達되었으며 谷山, 新溪에는 玄武岩台地가 있다.

- a. 谷山盆地
- b. 新溪盆地
- c. 遂安盆地
- d. 新溪 谷山玄武岩台地

20) 載寧江下流⁵²⁾

載寧江下流는 黃州平野와 같이 削剝으로된 準平原과 堆積으로 된 冲積地가 交叉되었다.

- a. 載寧平野
- b. 黃州平野

21) 禮成江下流⁵³⁾

이 江下流에는 延安, 白川의 冲積平野와 構造線에 依하여 된 金川低地가 있다.

- a. 延白平野
- b. 金川低地
- c. 朔寧低地

22) 黃海沿岸 丘陵⁵⁴⁾

이 丘陵은 支那系의 滅惡山脈에 依하여 長山串이, 또 이 山脈과 朝鮮系山脈과의 交叉로 因하여 甕津半島와 島嶼가 形成되었다.

- a. 長山串
- b. 甕津半島
- c. 白翎島 其他島嶼

23) 楸哥嶺地溝帶(支那系)⁵⁵⁾

이 低地帶는 京元線이 通過하며 楸北에는 馬息嶺山脈이 楸南에는 廣州山脈이 併行하여 主로 山地는 片麻岩인데 이 地溝는 花崗岩으로 衝動線에 있어 侵蝕으로 된 低地며 그 後에 玄武岩이 噴出하여 侵蝕谷을 被覆하여 熔岩台地를 形成하게 되었다.

- a. 漣川盆地
- b. 鐵原高原
- c. 平康高原

48) 中村新太郎: 平壤南方의 準平原, 樂浪準平原, 地球 3卷, 1925.

小藤文次郎: 前掲書

49), 50), 51), 52) 山田澄良: 前掲書

中村新太郎: "

姜錫午: "

山本態太郎: "

53), 54), 55) 小藤文次郎: 前掲書

中村新太郎: "

山田澄良: "

- d. 玄武岩台地
- e. 三防峽谷
- f. 釋王寺扇狀地

2. 楸南⁵⁶⁾

楸哥嶺地溝帶의 北部를 楸北이라고 하는데 對하여 그 南部를 楸南이라고 한다. 이 南部는 朝鮮系의 太白山脈群과 小白山脈群이 우리나라 脊樑山脈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곳에서 分岐된 支那系의 廣州山脈, 車嶺山脈, 蘆嶺山脈이 있어 一部를 除外하면 丘陵性山地가 切斷된 老年期 또는 晚壯年期의 從順山地로 太白山脈과 小白山脈中間은 嶺南盆지가 蘆嶺山脈以西에는 湖南平野가 展開되고 있다.

A. 韓國地塊⁵⁷⁾

朝鮮系의 太白山脈群은 東海에 急崖를 西海에 緩斜面을 向한 斷層運動에 依한 傾動地塊로 우리나라 脊樑山脈을 이루고 있고, 이곳에서 分岐된 小白山脈은 秋風嶺附近에서 集中된다.

南部에는 朝鮮系山脈에 韓國系(東西)가 交叉되어 있다.

한편 太白山脈에서는 廣州, 車嶺, 小白山脈에서는 蘆嶺山脈이 分岐되어 이러한 支那系의 褶曲山脈들은 地質構造와 一致되어 있다.

24) 太白山脈群(朝鮮系)⁵⁸⁾

이 山脈의 走向은 北北西에서 南南東으로서 朝鮮系라 하며 東海에 急崖를 西海에 緩斜面을 向한 傾動地塊로 우리나라 脊樑山脈을 이루고 있다. 大部分 500~1000m의 山地로 中央山脈, 海岸山脈, 嶺西山脈으로 區分하며 其中 中央山脈은 하나의 地壘를 形成한다.

- a. 中央山脈
- b. 海岸山脈
- c. 嶺西山脈(內地山脈은 日帝때 呼名)

25) 嶺東沿岸 低地⁵⁹⁾

太白山脈이 東海側에 急斜面을 向하고 있어서 河川이 짧고 急하여 海岸에는 峽長한 低地가 屢次 되었다.

- a. 通川沿岸 低地
- b. 高城沿岸 低地
- c. 襄陽沿岸 低地

- d. 江陵沿岸 低地
- e. 三陟沿岸 低地

26) 江原盆地群⁶⁰⁾

朝鮮系의 太白山脈群 中間에는 北, 南漢江이 흘러서 縱谷과 橫谷이 形成되고 嶺西山麓과 같이 侵蝕盆지가 發達되었다.

- | | |
|------------|------------|
| 1. 山間盆地群 | 2. 嶺西山麓 盆地 |
| a. 淮陽盆地 | a. 春川盆地 |
| b. 金化盆地 | b. 洪川盆地 |
| c. 華川盆地 | c. 橫城盆地 |
| d. 楊口盆地 | d. 原州盆地 |
| e. 麟蹄盆地 | |
| f. 亥安盆地 | |
| g. 大關嶺 高嶺地 | |
| h. 平昌盆地 | |
| i. 旌善盆地 | |
| j. 寧越盆地 | |

27) 廣州山脈(支那系)⁶¹⁾

이 山脈의 走向은 東北東에서 西南西의 遼東系山脈으로 우리나라 最古의 褶曲山脈으로서 長久한 期間侵蝕으로 北部에서는 1000m 서울以南에서는 300m 内外로 低下되어 山間에는 侵蝕盆지가 形成되었다.

- a. 加平盆地
- b. 淸平盆地
- c. 抱川盆地
- d. 廣州盆地
- e. 利川盆地
- f. 龍仁盆地
- g. 楊平盆地

28) 平準原⁶²⁾

우리나라 地形은 長期間의 削剝으로因하여 老年期の 從順山地로 되어있고 더욱이 侵蝕基準面에 가까운 西海岸沿岸에는 削剝準平原을 볼 수 있다.

驪州, 黃登, 富平, 樂浪은 代表的인 準平原이다. 이러한 準平原은 高位 平坦面周邊에 발달되어 所謂, 周邊準平原(Marginal, penepplain)이라고 하여 100m 以內的 準平原 背後山地는 晚壯年期山地로 되어 山頂과 山麓과의 斜面形이 凹形으로 된 곳이 많고 孤立丘陵과 殘丘가 곳곳에 分布된

56), 57), 58), 59), 60) 山本態太郎 : 前掲書

小林貞一 : 朝鮮半島 地形發達史와의 關係에 對한 考察, 地理學評論(1, 2), 日本 1931.

다.

- a. 驪州 利川準平原
- b. 富平準平原

29) 京畿丘陵群⁶³⁾

廣州山脈이 侵蝕으로 分離되어 孤立丘陵이 殘丘形으로 發達되었다.

- a. 高陽丘陵
- b. 龍仁丘陵
- c. 楊州丘陵
- d. 廣州丘陵

30) 京畿平野⁶⁴⁾

臨津江, 漢江, 振威川, 安城川 등에 依하여 形成된 孤立된 여러 單位의 平野를 合쳐서 말한다.

- a. 坡州平野
- b. 金浦平野
- c. 平澤平野
- d. 烏山平野
- e. 安城平野
- f. 長湖院平野

31) 江華灣 沿岸⁶⁵⁾

黃海의 沈降으로 灣入과 島嶼 및 大陸棚 등이 發達되고 干滿의 差가 커서 干潟地는 鹽田, 畚으로 利用된다.

- a. 江華灣 干潟地
- b. 江華島 其他島嶼

32) 車嶺山脈(支那系)⁶⁶⁾

廣州山脈과 같이 遼東系의 우리 나라 最古의 褶曲山脈으로 五台山에서 分岐되어 江原, 忠北 忠南道界를 斜行하여 長久한 侵蝕으로 丘陵化되었다.

- | | |
|------------|------------|
| 1. 車嶺山脈 北部 | 2. 車嶺山脈 南部 |
| a. 天安盆地 | a. 陰城盆地 |
| b. 禮山盆地 | b. 鎭川盆地 |
| c. 青陽盆地 | c. 雞龍丘陵 |
| d. 德山丘陵 | |

33) 牙山 淺水灣 低地⁶⁷⁾

牙山灣에는 插橋川과 그 支流 曲橋川에 依하여 鴻門, 禮唐의 冲積地가 形成되고 德山丘陵(伽倻丘陵)으로 瑞泰安半島와 區分되며 한편 西海

岸의 沈降性 리아스式海岸의 淺水灣과 眠眠島로 區分한다.

- a. 鴻門平野
- b. 禮唐平野
- c. 瑞泰安半島
- d. 淺水灣低地
- e. 安眠島 其他島嶼

34) 錦江流域⁶⁸⁾

車嶺山脈과 小白, 盧嶺山脈의 中間低地를 흐르는 이 江流域에는 花崗岩 片麻岩의 侵蝕盆地가 形成되었다.

- a. 清安盆地
- b. 清州盆地
- c. 美湖平野
- d. 大田盆地
- e. 公州盆地
- f. 扶餘盆地
- g. 錦山盆地

35) 論景平野⁶⁹⁾

車嶺, 盧嶺中間의 錦江 下流 忠南側의 平野로 支流 論山川, 江景川에 依하여 冲積平野가 發達되고 그 周圍에는 花崗岩의 剝準平原이 있다.

- a. 江景平野
- b. 論山平野
- c. 舒川平野
- d. 連山丘陵

36) 小白山脈 北部盆地群⁷⁰⁾

小白山脈北部 山麓은 忠北의 漢江, 錦江의 上流로 主로 花崗岩地帶로서 侵蝕盆地가 形成되었다.

- a. 永春盆地
- b. 丹陽盆地
- c. 堤川丘陵
- d. 忠州盆地
- e. 槐山盆地
- f. 報恩盆地
- g. 黃澗盆地
- h. 永同盆地
- i. 沃川丘陵地

61), 62), 63), 64), 65), 66), 67), 68), 69)

中村新太郎: 前掲書

山田澄良: "

山本態太郎: "

B. 嶺南盆地⁷¹⁾

朝鮮系의 太白山脈과 小白山脈群으로 圍繞되어 있는 嶺南盆地는 地質的으로 慶尙系에 屬하며 盆地狀構造를 이루고 있고 長期間의 侵蝕으로 盆地化되어 洛東江이 中央에 흐르고 있다.

37) 小白山脈群(朝鮮系)⁷²⁾

秋風嶺을 頂點으로 거의 南北向으로 展開된 朝鮮系山脈으로 主로 花崗片麻岩이나 東側은 嶺南盆地의 慶尙系와 境界하고 西側은 盧嶺山脈이 달리고 있다. 이 山脈中 八兄峙山脈은 하나의 地壘(Horst)다.

- a. 黃峙山脈
- b. 八兄峙山脈
- c. 六十嶺山脈
- d. 飛溇山脈

38) 韓山系 山脈群(韓山系)⁷³⁾

小白山脈이 朝鮮系로 거의 南北向인데 對하여 이 山脈은 東西向인 斷層山脈이며 이것으로 多島海海岸이 形成되었다.

- a. 栗峙山脈
- b. 綾州山脈
- c. 兵營山脈

39) 慶北 西北部盆地群⁷⁴⁾

小白山脈山麓에는 花崗片麻岩과 花崗岩이 分布되어 前者는 山地로 後者는 侵蝕되어 盆地로, 되었다.

- a. 奉化盆地
- b. 豐基盆地
- c. 聞慶盆地
- d. 金泉盆地
- e. 星州盆地
- f. 高靈盆地

40) 洛東江 上流低地⁷⁵⁾

洛東江 上流地域에는 花崗岩으로 慶尙系의 境界를 이루고 있으며 侵蝕地와 平野가 交叉되었다.

- a. 榮州平野
- b. 安東平野

- c. 醴泉盆地
- d. 咸昌平野
- e. 尙州盆地
- f. 善山盆地

41) 嶺南 太白山脈群 및 山麓盆地群⁷⁶⁾

太白山麓一帶에는 侵蝕地가 形成되었다.

- a. 英陽盆地
- b. 青松盆地
- c. 義城盆地
- d. 軍威盆地
- e. 彥陽盆地
- f. 梁山峽地

42) 琴湖盆地⁷⁷⁾

洛東江中流에 있는 大邱를 中心으로 支流 琴湖江이 合流되는 一帶에는 平野와 같은 큰 盆地가 發達되었다.

- a. 大邱盆地
- b. 永川平野
- c. 慶山盆地
- d. 倭館盆地
- e. 達城盆地

43) 嶺南 東海沿岸⁷⁸⁾

太白山脈이 東海로 急崖를 이루고 있어 海岸低地와 海岸段丘가 形成되었다.

- a. 竹邊低地
- b. 蔚珍低地
- c. 平海低地
- d. 盈德段丘
- e. 浦項低地
- f. 長鬐半島
- g. 鬱陵島

44) 慶南 西部山麓地⁷⁹⁾

小白山脈의 山麓地에는 花崗片麻岩에다 花崗岩으로 되어 前者는 山地로 後者는 山間侵蝕盆地로 되어 있다.

- a. 陝川盆地
- b. 居昌盆地
- c. 咸陽盆地

70), 71), 72), 73), 74), 75), 76), 77) 主村新太郎: 前掲書
山田澄良: "
山本態太郎: "

78), 79), 80), 81), 82), 83), 84) 主村新太郎: 前掲書
山田澄良: "
山本態太郎: "

d. 山清盆地

45) 慶南平野⁸⁰⁾

洛東 南江下流의 平野를 말하며 洛東江下流에
는 大渚三角洲가 形成되었다.

- a. 金海平野
- b. 密陽平野
- c. 昌寧平野
- d. 宜寧平野
- e. 昌原平野
- f. 咸安平野
- g. 泗川平野
- h. 大渚三角洲

46) 兄山江地溝帶⁸¹⁾

이 地溝帶는 蔚山, 浦項間의 低地로 北部에는
兄山江南部에는 大和川이 흐른다. 影池 附近의
丘陵이 分水嶺으로 하나의 對頂谷을 이루고 地
溝帶內는 迎日 三紀層이 推積되고 佛國寺 扇狀
地, Pediment, 湖沼, 盆地 등이 있다.

- a. 迎日灣低地
- b. 安康平野
- c. 慶州盆地
- d. 佛國寺扇狀地
- e. 兵營丘陵

47) 嶺南 南海沿岸⁸²⁾

朝鮮系의 太白山脈 小白山脈群과 韓山系의 山
脈群이 交叉되어 沈降으로 因하여 典型的인 리
아스式 海岸을 形成하고 있다.

- a. 釜山灣 沿岸
- b. 鎭海灣 沿岸
- c. 馬山灣 沿岸
- d. 晉州灣 沿岸
- e. 忠武沿岸
- f. 巨濟島, 南海島, 其他島嶼

C. 湖南平地⁸³⁾

支那系의 蘆嶺山脈이 斜行하여 湖南平野와 全
南平野로 區分되며 差別侵蝕으로 因하여 形成된
蘆嶺山脈은 一部를 除外하고 丘陵化되었고 西部

小 白山脈도 侵蝕으로 山地盆지가 交叉되었다.

48) 蘆嶺山脈(支那系)⁸⁴⁾

秋風嶺에서 分岐되어 蘆嶺을 지나 務安半島에
이르는 支那系山脈으로 낮은 곳에 있던 것이 硬
岩으로 侵蝕에 抵抗하여 山脈을 이루게 되었다.

49) 湖南平野⁸⁵⁾

萬頃江, 東津江流域의 下流는 冲積地 또는 干
澇地이지만 周邊은 削剝으로 準平原이다.

- a. 金堤平野
- b. 沃溝平野
- c. 新泰仁平野
- d. 湖南 西海岸 干澇地
- e. 黃登準平原
- f. 邊山丘陵
- g. 高敞丘陵

50) 全南平野⁸⁶⁾

嶺南山脈以南의 榮山江流域으로 主로 榮山江
流域이다.

- a. 羅州平野
- b. 光州平野
- c. 靈光平野

51) 湖南 東部山地⁸⁷⁾

蘆嶺山脈과 小白山脈間 中山地는 花崗片麻岩
과 花崗岩으로 되어 前者는 山地, 後者는 侵蝕盆
지로 되었고 이곳에는 鎭安 雲峰과 같은 高原또
는 高原性盆地도 있다.

- a. 鎭安高原
- b. 茂朱山地
- c. 長水山地
- d. 任實盆地
- e. 南原盆地
- f. 雲峰高原盆地
- g. 淳昌盆地
- h. 谷城盆地
- i. 潭陽盆地
- j. 求禮盆地
- k. 和順盆地

81) 小岩井兼輝: 延日炭田及 附近의 地質에 關하여, 朝鮮續業會誌 3卷, p. 230 (日本 1920)

85) 朴魯植: 濟洲島特定地域建設綜合計劃調查報告書, 서울, 1967.

86) Gilewska, S.; Different methods of showing the relief on the detailed geomorphological maps, zf. Geomorphol, N.F. —1967.

87) Hommond, E.H.; Analysis of properties in land from Geography. An application to broadscale land form mapping. A. A. A. G. 1964.

52) 湖南 南海沿岸⁸⁸⁾

朝鮮系의 小白山脈과 韓山系 東西方向의 山脈이 交叉되어 리아스식 海岸으로 多島海, 大韓式 海岸이라고 한다.

半島, 島嶼, 灣入, 岬角 등이 發達하였다.

- a. 麗水半島
- b. 光陽灣 低地
- c. 順天灣 低地
- d. 高興半島
- e. 寶城丘陵
- f. 長興低地
- g. 康津灣 低地

h. 海南半島

i. 靈岩沿岸 低地

j. 木浦沿岸

k. 花源半島

l. 珍島, 莞島 其他 島嶼

53) 濟州島⁸⁹⁾

이 섬은 1950m의 火山島(山頂은 鍾狀, 山麓은 楯狀火山)로 垂直의으로 區分한다.

a. 海岸低地(±100m)

b. 中山間地(200~600m)

c. 山地

d. 楸子島

註(文獻)-1

1. 山本熊太郎：新日本地誌，朝鮮論，古今書院 日本 1935
2. 西村嘉助：應用地形學，大明堂，日本 1969
3. 李重煥：八域誌，1727—1730
4. 小藤文次郎：山嶽論，日本 1901—1902
5. 中村新太郎：朝鮮의 自然地理，地貌論，特殊地形誌—1930
6. Richthöfen; Asia 階段地塊斷面 地理講座 Asia의 概說과 滿州 蒙古 地質 日本—1933
7. 小林貞：朝鮮半島 地形發達史와 地史와의 關係에 對한 考察 地評(112) 日本—1931
8. 多田文男：朝鮮의 地形 地評 17卷 日本—1941
9. 吉川虎雄：朝鮮半島中部의 地形 發達史 地質 53 日本—1947
10. 赤木祥彦：朝鮮의 Pediment 地評 38卷 11號 日本—1965
11. 朴魯植：智異土地開發報告 地形篇，國民運動再建本部—1963
12. 朴魯植：首都廣域圈調查 地形篇 建設部—1963
13. 朴魯植：大關嶺山地開發의 方向報告 地形篇 江原道—1966
14. 金相吳：韓國 中部地方 地形發達의 研究，서울 順大地理科—1965
15. 金相吳：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 地形研究，서울 大出版部—1966
16. 朴魯植：漢江下流地形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 慶熙大 論文集—1967

17. 朴魯植：韓國山地綜合開發에 關한 研究，太白 山地域의 農業的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慶熙 大 國土綜同 開發研究所—1969
18. D. L. Buck; Land Utilbization in China—1939
19. W. N. Davis; Notes on the description of Land forms, Bull. Amer. Geo. Soc. 42—1910
20. N. M. Fenne man; Physiographic divesion of the United States. Amer. Associ Amer. Geo 6—1916
21. 渡邊光：日本地形區 自然地理 應用地理 1卷 地形 古今書院—1961
- 22—23. 前記參照
24. 西田與四郎：日本地圖集 臺灣地形區 東洋圖書 帷子二郎 日本—1940)

註(文獻)-2

25. 井上禮之助：韓國의 地質及 鑛產，地學雜誌 19 卷，日本 1907
26. 田中啓爾：日本 地理風俗大系 17卷，朝鮮地方 飯本信元 (下) 新光社
- 27.—28. 立岩巖：極同 明川 七寶山及 古站洞幅 朝鮮地質圖 4輯，日本 1925
中村新太郎：日本 地理大系 朝鮮篇朝鮮의 自然 地理) 地貌編 改造社 日本—1930
鄭昌熙：地質學概論，韓國地質概要 博英社 서울 1958
29. 中村新太郎：27—28前記
姜錫午：概觀韓國地理 豐川，文化社 서울 1959
- 30—31. 金玉準：南韓中部 地域의 地質과 地球論，

88) Klimaszewski, M.; Conference of Subcommission on Geomorphological mapping poland, 3~12, Anay. 1962.

- 연세대 1969
- 小藤 文次郎：山嶽論 日本 1901—1902
- 山田澄良：朝鮮의 山脈 地理教育, 3號 서울 1929
- 松田甲：朝鮮第一의 高山 威北의 冠帽峯 朝鮮 9月號 1930
- 32—33. 川山熊太郎：白頭山과 白頭火山脈 文敎의 朝鮮, 10月號 1926
- 鄭昌熙：(27—28) 前記
34. 鄭昌熙：(27—28) 前記
- 中村新太郎：(27—28) 前記
- 35—36. 中村期太郎：(27—28) 前記
- 中村新太郎：甲山長津高原의 南緣 1925
- 小藤緣次郎：韓國北部의 地勢 地學雜誌 14卷 p. 339 日本 1902
- 37—38—39—40—41—42—43.
- 山田澄良：(29—30) 前記
- 中村 新太郎：(27—28) 前記
- 姜錫午：(29) 前記
- 44—45—46. 山本態太郎：新日本地誌 古今書院 東京
- 山藤文次郎：(29—30) 前記
- 山田澄良：(29—30) 前記
- 47—48. 中村新太郎：(27—28) 前記
- 中村新太郎：平壤南方의 準平原—樂浪 準平原 地球 3卷 1925
- 小藤文次郎：韓國北部의 地勢 地學雜誌 14卷 p. 399 日本—1902
- 49—50—51—52.
- 山田澄良：(29—30) 前記
- 中村新太郎：(27—28) 前記
- 姜 錫 午：(29) 前記
- 山本態太郎：(43—44) 前記
- 53—54—55.
- 小藤文次郎：(29—30) 前記
- 中村新太郎：(27—28) 前記
- 山田澄良：(29—30) 前記
- 56—57—58—59—60.
- 山本態太郎：(43—44) 前記
- 小林貞一：朝鮮半島 地形發達史의 關係에 對한 考察 地理學評論 (1, 2) 日本, 1931
- 中村新太郎：46—47—48 前記
- 6—62—63—64—65—66—67—68—69—70—
- 71—72—73—74—75—76—77
- 中村新太郎：(27—28) 前記
- 山田澄良：(29—30) 前記
- 山本態太郎：(43—44) 前記
- 78—79—80—81—82—83—84.
- 中村新太郎：(27—28) 前記
- 山田澄良：(29—30) 前記
- 山本態太郎：(43—44) 前記
85. 朴魯植：濟州島特定 地域建設綜合 計劃調查 報告書 서울 1967
- 淺海原夫：「地形分類에 關한 試案」, 地理學評論, 日本 1951
- 中野尊正：「土地 分類의 基本」 地理調查時報, 日本, 1953
- 中野尊正：「地形分類 그 原理와 應用」 地學雜誌 日本, 1961
- 農林·水産 技術會議事務局編 「새 農村計劃을 爲한 土地利用區分과 그 順序와 方法」, 農林統計 協會 日本, 1964
- 大矢雅彦：「狩野川 中下流域 水害地形 分類圖」 地理學評論, 日本, 1960
- 式正英：應用地理學의 最近의 動向, 地形分類의 發展, 地理, 5—1, 日本, 1960
- 渡邊光：「地形學, 現代地理學大系」 第一卷 古今書院, 日本, 1963
- 久間建一：朝鮮農業經營地帶研究, 農業 綜合研究所, 日本, 1951
- 朴魯植：五大江流域의 土地利用에 對한 類型的 分類의 研究(一, 二)
- 慶熙大教授論文集, 서울 1964
- 陳正祥：臺灣의 地理區域, 地評 29卷, 11號, 東京, 1956
- 金窪敏知：二萬五千分之一 土地條件圖(1, 2) 地理 11卷 4號, 5號 1966
- 原口九萬：濟州島火山岩의 岩漿分化에 關하여 地球, 13卷 1930
- 濟州火山島, 小林博士 還曆祝賀, 地學論, 日本 1930
- 小林貞一：江原道의 地史, 地質學雜誌 34卷 日本 1927
- 小川琢治：朝鮮半島 西側의 地貌史, 1卷, 4號, 日本 1916
- 小川琢治：東西孤狀構造線의 地球, 7卷 日本 1927
- 玄岩巖：朝鮮半島生成의 機構에 關하여 文敎의 朝鮮, 서울 8月號, 1932
- 德永重康：朝鮮鳳山炭田의 地質時代, 地質學雜誌, 40卷, 日本, 1933.

A Study of Physiographic province in Korea

No Shik Park,

Summary:

Korea physiographic province is divided into two provinces which is northern Chugaryung graben zone and southern Chugaryung graben zone.

Northern Chugaryung is also divided into Gema block and Kohan block, and southern Chugaryung divided into Han block, Yongnam basin and Honam plain. The above mentioned macro geomorphic units is divided, mainly on the geotectonics.

The meso geomorphic units is divided, based up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opographic characteristic that is plateaus, mountains, mountain range, basins and great plain etc. Micro geomorphic units is divided into a mountain, a hill, a plain, and a lowland, and then it is formed by self-reliant topographic unit. And micro topographic (fan, peneplain, delta, etc.) dealt with a characteristics unit. In this article has a disregarded smallest scale that is included flood plain, natural levee, back marsh and ox

bow lack etc. Accordingly, it shows macro units are 5, meso units are 53, micro units are 299.

A study method of physiographic provinces preferred to aufsteigende and absteigende method. How to organically combine topographic factors can be seen in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peculiar topographic characteristics, for characteristic of topographic makes a study on the topographic of micro unit such understanding as aufsteigende method. At the same time, since it can be studied systematically from macro unit to micro unit like the absteigende methods, I used both methods. And this establishment of physiographic province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 depend on the base map of climate classification, Geology, Soil, Biology.

I feel confident that it will be used the basic map for land use map, land classification map, study of geomorphology of Korea. And will be used for study of a topographic standard data.